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8일(일) 총 6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도시경관과	담당 자 • 경관팀장 정두용 ☎032-440-4781 • 담당자 황희정 ☎032-440-478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도시경관의 미래, ‘2040경관계획’ 공청회 열어
 - 10일,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 의 미래 전략 제시 -

인천광역시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중구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에서 ‘204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4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은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을 비전으로, 2017년 수립된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계획안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산림과 도시 스카이라인이 공존하는 경관 ▲대한민국 대표항만·해안에 걸 맞는 풍경 ▲인천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미래유산 ▲신도시와 원도심 모두 매력적인 경관 ▲시민과 행정, 광역과 기초가 협력하고 실천하는 5대 과제와 실천전략이 담겨있다.

기존 4개 경관권역(신도시 경관특화권역, 원도시 경관정비권역, 역사문화 경관관리구역, 도서경관 창출권역)을 서부경관권역, 중동부 경관권역, 도서경관권역으로 3개 권역으로 재정비하고, 산림경관축, 해안

경관축, 내부수변경관축과 지표경관거점, 역사경관거점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군·구 의견을 반영한 총 9개소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제시하고, 조망경관계획과 경관지구 관리 방안을 새롭게 담고 있다.

특히, 차별화된 인천만의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시민협력단을 운영해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경관자원인 기존 ‘한국최초, 인천최고 100선’ 외에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문화경관자원 ‘시민최애 50선’을 발굴하고 인천문화경관 강화방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일관성 있는 경관시책 추진을 위해 시와 군·구의 역할 정립과 인천 맞춤형 경관심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관계획 설명과 함께, 공청회 좌장을 맡은 김세용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을 비롯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장, 인천연구원 이인재 박사, 인천경실련 김송원 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공청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그간 경관포럼을 통해 시와 군·구 경관시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시민협력단 운영으로 문화경관자원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소통하는 경관행정을 이뤄가려고 노력했다”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인천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실천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개최되며, 온라인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유튜브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검색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40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이 수립·공고되면, 경관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추진 매뉴얼이 제공돼 각종사업 추진 시 참고하는 기준서로 활용될 수 있다.

<사진> 2040인천 경관계획 시민공청회 안내

<참고> 2040경관계획 주요 내용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2040 Incheon cityscape masterplan

시민공청회

온라인/오프라인

2022. 5. 10. (화).

일시/장소 2022. 5. 10. (화). 14:00 - 16:00,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 호텔 15층 하버베이

참여방법 **현장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 신청 인원내 한하여 입장 가능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신청기한 2022. 4. 26. (화). - 2022. 5. 3. (화).

온라인참여 유튜브 실시간 중계

참여방법 유튜브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검색을 통해 시청 가능

진행순서 **제1부** 계획발표

개회 14:00 개회 및 경과보고

발표 14:15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안) 설명 발표자 이은정 [(주)울 소장]

제2부 지명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15:00 지명토론

주최자 김세용 [(사)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토론자 주신하 [(사)한국경관학회 회장]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장]

이인재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처장]

정동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질의 15:40 질의답변

폐회 16:00 폐회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건축과 (TEL. 032-440-4782)

*공청회 이후 2022년 5월 17일 18:00까지 의견을 팩스(032-440-8681) 또는 전자우편(hjcecile@korea.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최 인천광역시 | 주 관 (주)울, (주)도화엔지니어링

경관미래상 및 추진과제 정비(안)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

—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인천 —

상반된 매력, 공존의 도시 인천을 함께 꿈꾸기 위한



01 경관계획 유형의 재분류

- 도시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
- 시장 · 군수와 자치구청장 등 기초자치체의 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

중점경관구역 02 지정-운영 주체의 일원화

- 광역시 경관계획 시 수립하는 · 중점경관구역 계획 역할 설정
- 자치구 · 군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구역 중심의 계획 수립 방안 ·

※ 「경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천광역시 경관제도 개선을 위해 이렇게 제안 했습니다!

- 정의 및 대상 검토
- 인천광역시 경관 현안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확대(안)

03 경관심의 사회기반시설 심의 대상 확대

경관지구 04 관리 및 운영 지원

- ※ 「경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자치구 · 군 경관계획의 경관지구 중심의 계획 수립 방안 ·

경관사업 정비(안)



경관사업 주제

“(가칭) 인천 경관 닥터 사업”의 지속적 추진

· 『함께하는 미래유산, 인천경관』 경관비전 실현하는데 저해 요인이 된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경관 개선 사업 추진

추진방안

선도추진 단계
(2022~2024)

광역시 주도

· 시 선도 추진

· 군·구 사업비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전 검증 및 체계 정비



확산/지속 단계
(2025~2030)

군·구 추진

· 군·구
: 자발적 추진

· 인천광역시
: 사업 추진 지원 + 원료 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경관사업 유형(안)

소중한 자연

보전

경관유산 치유사업

관련법에 의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음에도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경관 유산의 보전 및 훼손 치유

자연 경관유산 치유 경관사업(안)

행복한 시민

관리·개선

생활경관 소생사업

시민의 생활 속 경관 향유에
저해가 되는 요소의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 사업(안)

⋮

품격 높은 인천

형성

명소경관 재생사업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사업 재추진 시점이 도래한 명소의
경관 형성 및 명소화 선도

친수 보행성 강화 경관사업(안)

문화경관 명소화 경관사업(안)

⋮

구·군별

우선 사업추진 대상지

시민이 원하는!

우선 추진 필요 경관사업 관련 설문 및 문화경관 인터뷰 조사 결과 반영

강화군
44.21% 33.93%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농산어촌 : 설문 ·

서구
29.57% 29.57%
공동 1순위 역사문화 + 지역녹화 : 설문 ·

동구
42.88% 22.45%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가로환경 : 설문 ·

중구
45.03% 15.32%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야간경관 : 설문 ·

옹진군
48.78% 34.16%
1순위 농산어촌 + 2순위 역사문화 : 설문 ·



계양구
36.75%
· 설문 :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가로환경

부평구
31.25%
· 설문 : 1순위 가로환경 + 2순위 역사문화

미추홀구
34.45%
· 설문 :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지역녹화

남동구
33.77%
· 설문 :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지역녹화

연수구
33.11%
· 설문 : 1순위 역사문화 + 2순위 가로환경